

싱가폴 제조업 인재부족 허덕

아시아 Hub 위해 넘어야 할 산 ... 채용 앞서 유지도 중요

싱가폴 제조기업 사이에 인재부족이 큰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 경제위기와 IT불황의 영향으로 사무직 일자리는 줄었지만 경제위기 이후에도 계속된 투자로 고용기회가 증가해 제조업의 고용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Jurong섬의 일본계 화학기업들은 종종 전임 엔지니어가 없어 곤란을 겪는 문제 생기고 있는데, Jurong섬 소재 화학기업에서는 2001년 1년간 노동자의 30%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Jurong섬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산업 경험 노동자들이 Biotechnology 등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로 옮기는 상황이 적지 않은데,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Jurong섬에서의 트러블과 숙련공의 부족을 같은 맥락에서 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싱가폴 정부도 노동자 부족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노동자 확보와 유지가 최근 들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Phillips Electronics의 아시아·태평양 CEO는 전자·화학·Bio 등 싱가포르 제조업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산업분야에서 일어나는 인재부족을 지적하며 현지 숙련공의 확보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직에서는 높은 월급을 주어도 원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싱가폴 정부도 산업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 일본의 고등전문학교에 해당하는 폴리테크닉스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교육시설의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도와는 달리 학생의 3분의 2가 편입시험을 치러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폴에서는 채용에 그치지 않고 고용해 훈련을 마친 인재를 얼마나 유지하는가가 과제가 되고 있다.

Jurong섬 소재 화학기업들은 2001년 1년간 30%의 노동자가 퇴직했는데, 2자리수의 퇴직률은 놀랄 일도 아니라는 자조섞인 비탄이 회자되고 있다.

Job Hopping이라고 하는 직장이동은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에도 꽤 있었지만 이제는 싱가포르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관리부문이나 영업부분 등 싱가포르 본섬의 사무직 이직은 많지 않으나 제조업의 이직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화학기업들은 동일계열기업간 인재교류가 해결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사업마다 회사를 등록을 하기 때문에 동일자본 계열이라도 인재교류를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구체화를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

싱가폴이 아시아 석유화학산업의 Hub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기본인 노동자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6/02>